

退溪의 書院教育論考**

丁 淳 睦*

• 目 次 •

- | | |
|------------------------|----------------------|
| I. 韓國書院發達の 역사적 특수성과 退溪 | III. 退溪의 서원설립의 동기목적론 |
| II. 士林精神과 서원교육 | IV. 退溪의 서원교육 방법론 |

I. 韓國書院發達の 역사적 특수성과 退溪

한국의 書院 성립과 발달은 중국의 그것과는 모습이 같지 않다. 한국의 서원은 중국 서원의 모방이 아니라 다만 <故事引用>적인 緣起에 불과한 독자적인 개성적 발달을 이루어 왔음에 먼저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두 나라의 서원 건립에 배경 요인 가운데는 과거제도 아래에서의 <獵取功名>으로 士風이 크게 무너졌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도 작용하였을 것이고, <世亂失學>의 시대사조에 대한 儒者의 자성적 비판으로 서원이 興起하였을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두 나라의 서원 건립 운동은 다같이 「世亂失學」 또는 「無教」로 표상되는 시대상의 반영이기는 하지만 그 발생의 배경이 다르다. 중국은 五代의 분란을 거쳐, 宋이 천하를 一統시켰으나 국가로서는 아직 官學을 설립한다거나 달리 교육에 대하여 돌볼 힘과 겨를이 없었다. 여

* 전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작고)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19호, (1978) 게재논문

기에 민간 주도의 서원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朱子는 다음과 같이 당시의 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¹⁾

予惟前代庠序之教不修，士病無所於學，往往擇勝地，立精舍，以爲羣居講習之所，而爲政者乃或就而褒表之，若此山，若嶽麓，若白鹿洞之類是也

송나라 초에 있어서의 전란은 수많은 학자의 손실을 가져왔고, 차츰 海內가 向平이 되자 文風은 따라서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그 동안 배움에 굶주린 知識分子들은 山林에 의거하는 老士宿儒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이른바 「친하의 四書院」²⁾의 창설은 곧 <官學未設士子向學心切>³⁾의 당연한 귀결이었던 것이다.

이에 비한다면, 한국의 서원 교육의 발생과 그 진전은 중국의 그것과는 사정이 달랐다. 우리에게 「戰亂」이 없었던 반면에 「士禍」라는 지식분자들의 엄청난 수난이 없었으며, 우리에게서 명목상이나마 성균관·四學·향교 등 관학이 건재하였으나, 「世道の衰微」나 「士風の磨滅」, 相은 중국에 비할 바가 아닐 정도였다. 따라서 퇴계(周慎齋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의 서원 건립 운동은 그만큼 절실한 시대 의식의 발로였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 교육기관으로서의 서원 건립 운동의 본격적인 주역을 담당하였던 분이 퇴계로 본다면, 우리는 먼저 그의 역사인식과 인간이해라는 두 측면으로 서원을 바라보아야 하겠다.

유학 발달상 政敎와 禮敎 가운데 특별히 예교가 강조되는 시기는 대체로 예의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한 이후이다. 정치와 윤리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道義가 문란하고 인륜이 쇠잔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1) 朱子大全(卷七九), 「衡州石鼓書院記」

2) 盛郎西, 中國書院制度, 中華書局, p.21 (呂祖謙 鹿洞書院記)인용. 「…國初斯民新脫五季鋒鏑之厄, 學者尙寡. 海內向平文風日記, 儒生往往依山林, 卽閒曠以講授, 大率多至數十百人. 嵩陽, 嶽麓, 睢陽及是洞爲尤者, 天下所謂四書院是也」.

3) 孫彥民, 宋代書院制度之研究, 國立政治大學刊, p.9

이러할 때 하나의 시대 철학은 역설적으로 등장하는 수가 있다. 이것은 「헬레닉」사회의 사상적인 붕괴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원의 철학」(philosophia perennis)을 탄생시킨 연유와 비슷한 이야기가 된다.

새로운 사상의 운동은 政教·禮教的인 衰微를 비판적으로 자성하는 데서 나올 수 있다면, 퇴계의 서원교육관 및 그 설립운동은 「土風의 回運」이라는 시대사적 사명의식의 자각이라는 각도와 결부시켜 볼만도 한 것이다.

世道衰微·土風磨滅이라는 시대 인식에서 퇴계는 靜菴과는 대조적으로, 간접적이거나, 근본적인 수단인 敎學으로서의 <현실참여>에의 길을 택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현실 문제의 해결은 「學究生活을 통하여 성리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後進의 敎誨를 통하여 먼 장래를 기약하는 보다 원대한 것으로 계획된」⁵⁾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II. 士林精神과 書院敎育

유교 이상은 원래 「글하는 사람을 가르침」(Lehre der Literaten)으로써, 문예적 교양인을 기르려는 현세적이며 합리주의적 윤리를 바탕으로 한다. 유학은 본질적으로 윤리와 정치를 불가분의 관계로 보는 현실성을 그 특징의 하나로 하고 있지만, 治隱 吉再를 필두로 하는 山林學派들은 대개 사학으로써 교육을 창도하였고 이는 嶺南士林의 학통으로 연결된다. 예교를 중시하는 도학은 士林派의 정신적 바탕이었다. 퇴계는 예교적 도학정신을 구현하는데 그 宗匠이 되었다. 그가 비록 전후 36년간에 걸친 관직 생활에도 불구하고 도학으로 입신할 수 있었던 것은 시대 기류를 민감하게 診脉한 慧眼을 지녔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5) 李秉杰, 퇴계이황의 家系와 生涯, 「退溪學研究」(第一輯), 경상북도, 1973, p.109

趙靜菴과는 달리 勳舊派와의 정면 대결의 길보다는 성리학 본연의 길인 「철학함으로써 행위 하는 것」을 택하였던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한국 유학을 정치 지향성으로부터 윤리 지향으로 나아가 山林哲學의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이같은 경향은 土禍를 두고 볼 때도 나타난다.⁶⁾ 사회는 항상 사림과의 패배의 결과로 나타났으나, 네 차례의 사회가 지나간 뒤에는 오히려 勳舊派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⁷⁾ 사림과의 대두는 하나의 역사적인 大勢였던 것이다.

퇴계는 政敎지향에서 禮敎지향으로 교학이념을 전환시키는 「원동력」이 곧 士林 정신이고, 그러한 힘의 진원이 곧 선비라고 본 것이다. 뒷날에 朴燕岩은 「原土」라는 글에서 「천하의 公言을 『土論』이라 하고, 당세의 一流를 『土流』라 하고, 四海의 義聲을 『土氣』라 하고, 군자가 죄없이 죽는 것을 『土禍』라 하고 講學論道하는 것을 『士林』이라 한다.」(燕岩集, 卷十, <原土>)고 한 그 <士林>이요 <선비>이다.

퇴계로 비롯되는 서원 교육 운동은 이러한 사림 정신의 배양지로서 종적으로는 學統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고, 횡적으로는 학파의 連繫와 유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는 黨爭이 극렬화 되기까지 전국적으로 敎學을 唱盛시키고 文運을 隆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각 학파간의 선의의 학술 논쟁은 학문 발전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였다.

퇴계가 서원을 통하여 振作시키고자 한 것은 단순히 <立廟而尙德·立院而敎學>하려는 형식논리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는 서원을 통하여 土氣를 진작시킨다는 교육 이상의 현세적 실현을 염원하였다. 퇴계의 서원 교육 운동은 당세의 도덕적인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그의 순수한 도덕적 판단에서 「행위하는 것」이었다. 네 차례의 사회는 퇴계로 하여금 선비로서 「행위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도덕율적인 판단의 척도(자아의 인격실현)를 다짐하였거니와 「元氣」를 어떻게 진작시켜야 하는가에 대하여도 지혜로운 해답을 마련하였던 것

6) 丁淳睦, 前掲書, p.130

7) 李成茂, 「十五世紀兩班論」, 「창작과 비평」(Vol., 8 No.11) 1973 p.503

이다. 그에 의하면, 참된 儒者는 居敬窮理·存養省察하는 내적 자유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정신의 「길」이 모여서 士林의 元氣는 진작된다고 본 것이다. 서원은 土風振作的 요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데, 오늘의 國學은 어진 선비들의 所關이지만, 대체로 군현의 향교는 한갓 文具로만 남고 교육은 크게 무너져, 선비들은 향교에서 지내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이 여겨서 그 剋敵함이 극심하여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되었으니 가히 한심합니다. 서원 교육이 이제 盛興한다면 學政의 퇴폐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학자의 歸依할 바가 있고 土風이 따라서 크게 변하여 습속이 날로 아름다워질 것이며, 王化가 가히 이루어질 것입니다.⁸⁾

당시의 선비의 모습은 「菱角이 변하여 鷄頭가 된」⁹⁾ 슬픈¹⁰⁾ 모습 뿐이었다. 그가 그리는 선비상은 毅然한 大丈夫像이기조차 하였다. 金仲文의 유생 毆打事件에 대하여 쓴 글 「擬與郡守論書院事」(丁巳)에 의하면, 선비란 天子와 벗하여도 외람되지 아니하고 王公으로서 선비에게 몸을 낮추어 사귀더라도 욕이 되지 않는 것이니, 이로써 선비가 가히 귀하고 공격받는 까닭이 되는 것이며 節義의 명예가 그렇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바라고 하였다.¹¹⁾

선비는 예의의 宗이며, 서원은 尊賢하는 곳이기 때문에 선비를 함부

8) 退溪全書, 大東文化研究院(影印), 1971 p.264 (앞으로 「退·全」()으로 略記함)

「混竊見今之國學固爲賢士之所關 若夫郡縣之學 則徒設文具 教方大壞 士反以游於鄉校爲恥 其則敵之極 無道以救之 可爲寒心惟有書院之教 盛興於今日 則庶可以救學政之缺 學者有所依歸 土風從而丕變 習俗日美而王化可成 其於聖治非所補也」

9) 「退·全」(二), p.339 「論四學師生文」

10) 「師長亦困於齒舌甘受鉗制菱角變爲鷄頭…嗚呼 國家養士之意何如士子自待之賤乃如比何其遜歟」

11) 위의 책(一), p.341 「故以匹夫 而友天子不爲僭 以王公而下韋布不爲辱 此士所以可貴可敬 而節義之名所以立也」

로 呼斥하거나 천대하는 일은 武夫의 거친 행동이 아니면, 下流의 천한 무리나 할 것이라고 하였다. 퇴계가 汗血로 重興시킨 소수서원에서까지 이러한 非禮妄動이 있었을 정도이니 그 당시의 士氣의 沮喪을 미루어 살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퇴계는 교육희망의 꿈을 버리지 않았거니와 선비의 교육적인 자아실현관도 끝내 외면하지는 않았다.

院中諸生而改圖之幸甚 抑又聞之數君子當日既聞 黃仲舉之言深自悔責手裂其書而詣門謝過也 此則非常人所可及也 其人必勇於改過遷善 而卒有立於當世矣 彼院中諸生見數君子之如是也亦必相戒而改前日之非 則不待他時而院風而稍變

퇴계는 사회시대에 그의 반생을 살았다. 사대사회는 그가 출생하기 3년전(무오사화 1448)에서 46세(을사사화, 1545)에 걸친 것이었다. 그간 그의 至親은 사회의 피해를 직접 입기도 하였으며, 퇴계 자신 또한 金安老·李芑 등의 모함을 받아 어려운 지경을 겪은 바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결국 그는 정치적으로 사림의 被禍가 컸던 嶺南사람의 일원이었다. 이에 정치권력무상의 교훈을 뼈저리게 체험하였으려니와, 무엇보다 그 시대를 사는 지성으로서의 시대 의식과 포부를 새롭게 하였을 것이다. 그는 「道學絶滅」이 되는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선비 스스로의 철저한 교화를 통한 근본적인 사회 개혁의 길일 수밖에 없다고 믿었다. 그는 靜菴과 같은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哲人君主의 개조작업」이 마침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爲人」하는 일보다 「爲己」하는 일에 欠節이 있었다고 평가할(若學力既充, 德器成就然後, 出而擔當世, 則其所就)정도다. 그리하여 퇴계는 향약으로 鄉風을 醇厚케 하고, 서원 교육을 통하여 점진적이고 근원적인 士風의 진작을 도모하여야 되리라고 본 것이다. 그는 經世家이기 보다는 끝까지 「교육의 선비」였던 것이다.

Ⅲ. 退溪의 서원설립의 동기목적론

근래의 한 연구는, 서원을 정의하여, 「인륜존중의 사회실현을 위한 중추기관」 또는 「道義존중의 인간사회를 실현하려는 중추기관」이라고 하였다.¹³⁾ 「중추기관설」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긍정되는 규정이라고 본다. 이 연구에 의하면 서원 교육은 단순한 講學만이 아닌 ㉠「이상실현의 추진자」, ㉡「유학정신의 실천자」, ㉢「역사의 방향을 바로 잡고 이끄는 人格者」의 「양성」에 있기 때문에 講學(教育)은 수단이며 결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¹⁴⁾ 이상의 ㉠㉡㉢은 시간적으로 현재·미래·과거를 通貫하는 자세를 지향하는 유자의 일반적인 속성을 내포한다.

「선비」는 「무엇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배양하여야 하는가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곧 성리교학관의 원리와 방법에 관한 물음이다. 성리교학관에서의 인간형성의 원리와 방법의 문제는 「교육이란 무엇인가」의 문제보다 「사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전제조건이 되겠다. 이 점에서 볼 때 위의 ㉠㉡㉢項의 분석적인 인간해석은 오히려 부차적이며, 결과론적 인간관이 될 우려가 있다.

儒學교육은 「~하기 때문에, ~한다. Warum~Darum」라는 식의 「단힘꼴로서의 사람됨」(君子不器)을 거부한다. 따라서 서원 교육의 목적을 인간형성의 논리로 국한하여 찾으려고 할 때, 그 목적은 「도덕적 인격의 실현과 사회적 확충」이 된다. 서원 교육의 목적은 국학이나 향교 교육의 목적이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특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서원교육의 목적은 유학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다는 同語반복의 논리를 되풀이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서원 교육의 목적이라는 말은 성립될 수는 없는 것 같다. 설립의 「동기목적」이 구체적으로

13) 宋婉燮, 李退溪의 書院教育考察, 「退溪學研究」, (Vol. 11) 1974 pp.107~136

14) 위의 글, p.一一三

밝혀져야 하리라고 본다.

퇴계가 밝힌 서원 설립의 동기·목적(此而優於彼)은 ㉠ 환경의 교육성 ㉡ 교육의 자유성이라는 두 측면이다.¹⁵⁾ 전자는 교육하는 일의 외적 자유를 강조하였다고 한다면, 후자는 그 내적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儒學교육에서 「요산요수」하는 것을 道の 山水를 逍遙하는 일이다. 퇴계는 자연을 상대객관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의 자연은 理와 氣가 합치는 자리, 內·外와 彼·此의 구별이 없는 자리로서의 「마음의 자리」이다. 이곳에서 物我는 일체가 되고 객관과 주관은 융합되며 자연과 인간은 합일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物我一體論적인 格物은 敬에 의하여 가치론적이고 종교적인 상태로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敬의 자리에서 인간과 자연은 融會貫通되고, 動靜의 운동 논리와 始·通·遂·成의 순환 논리는 보다 철저히 종합되는 것이다. 퇴계가 무엇보다 「환경의 교육성」을 강조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君子가 樂山樂水 하는 까닭은 天然한 自然心 가운데 「獨往玩詠」하려는 정신적 자유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교육의 자율성」이란 다음 절에서도 언급하겠지만 교육외적 압력이나 조건들로부터 자유를 뜻한다. 예컨대 <學會之抱礙>·<科擧之累>·<世之囂> 등과의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자유」를 방해하는 가장 큰 조건이 「욕심의 근원」이라고 퇴계는 보았다.¹⁷⁾

15) 「退·全」, ○(上沈方伯) p.263 [隱居求志之士 講道卦業之倫率多厭世之囂 競抱負境策 思逃於寬聞之野 寂寬之濱 以歌詠先王之道 靜而閱天下之義理 以蓄其德以熟其仁 以是爲樂 故樂就於書院 其視國學鄉校在朝市城郭之中 前有學會之抱礙 後有異物之遷奪者其功效 豈可同日而語哉 由是言之 非惟士之爲學得力於書院 國家之得賢亦 必於此而優於彼也]

○ 위의 책(二), <伊山書院記>, p.362

「無教卽近於禽獸 聖人有憂之 教以人倫三代之學 皆所以明人倫也 至於後世聖王不作 古道崩滅 而文詞科擧利祿之習潰人心術馳狂瀾而 莫之回則 內而國學 外而鄉校 皆昧然莫知其教 漠然無事乎學矣 此有志之士所以發憤咏嘆抱負墳策而 遁逃於山岩蔽澤之中相與請所聞以明基道以成己成人則書院之作於後世 勢不得不然而其事之 可尙爲如何哉」

남녀는 大欲이 존재하는 바며, 부부는 인륜이 비롯되는 바라, 그러므로 先王之 가르침으로 늘상 그 욕심의 근원을 삼가 막아야 하거늘, 이제 무리로 모여 담소하고 회롱하는 것은 이 욕심구덩이(慾坑)의 일이라. (….) 오호라 서원은 무엇을 하려고 세운 것이겠는가. 尊賢 講道하지 않기 위하여 세운 것이겠는가.(….)

항차 儒冠들이 서로 스스로의 행실을 욕되게 함에 이르러서야! 선비로서 이리하다면 선비를 귀하게 여길 까닭이 없고, 서원이 이리하다면 서원을 귀하게 여길 것인가. 하물며 이러한 作風이 一朝一處에 그리된 것이 아니라, 그 所由來가 오랜지라 나라의 四維(禮·儀·廉·恥)가 橫決하여 山移海變한 것 같이 그 끝을 알 수 없으니 한 때의 풍속이 파괴됨이 이에 극에 달하였다. 어찌 일개 서원의 근심일 뿐이겠는가.

그러므로 「章甫의 冠」을 쓰고 「縫據의 옷」을 입는 선비는 비록 「科擧의 累」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講道の 方」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猶知重道義 尙禮讓彬彬乎 習於士君子之風

을 지니기만 한다면, 「此書院之所以爲貴」¹⁸⁾라고 하였다. 이러하기 때문에 퇴계가 서원 교육에서 강조하는 내적인 교육의 자유성은 학문의 자유이며 학문하는 자유 그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신이 자유하는 선비가 서원에 들어가는 일을 퇴계는 <登瀛>에 비한다고 하였던 것이다.

17) 「退·全」(擬與豐基郡守論書院) p.342

「男女大慾之所存 夫婦人倫之所始 故先王之教 每窒其源 而謹其防 今群居談謔盡是慾坑之事(…) 嗚呼書院 何爲而設也 其不爲尊賢而設耶講道而設耶向也(…) 況今儒冠相率而自辱其行耶 士而如此何貴於士 書院而如此 何貴於書院 而況此風之作 非一朝一處然也 其所由來者遠矣 四維橫決 如山移海變 無所底止一時風俗之壞 至此極也 殊非吉祥之兆 不獨爲一院之憂也。」

18) 위의 글, p.341

IV. 退溪의 서원교육 법론

賜額書院은 퇴계에 의하여 비로소 국가공인의 민간 교육기관으로 등장하였다. 서원 교육이 흥성하게 된 까닭은 전술한 바, <환경의 교육성>이나 <교육의 자유성> 이외에, 안으로는 뛰어난 <스승>이 있었으며, 밖으로 서원에 대한 국가의 <보호육성책>이라는 내적인 요인에 힘입은 바 컸다. 잇따른 사회는 뛰어난 스승을 서원으로 불러들이게 하였으며 (士子之欲借書院以避禍)¹⁹⁾ 사액제도는 국가의 서원보호육성책의 표시다.

퇴계는 己酉(1549)년 12월에 監司에게 글을 올려 白雲洞서원에 扁額과 서적頒降의 啓聞을 청하였고 이듬해 「소수서원」이 우리 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이 된 것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다. 우리가 관심 있게 살피는 것은 이 때의 퇴계심신에 관한 일이다. 퇴계연보에 의하면 퇴계는 <上沈方伯>書를 올리고 곧 稱病하여 監司에게 세 번이나 解官을 청하고, 그 回報조차 기다리지 않고 귀향하고 만다. 그리고 이듬해 정월에는 이와 같은 任所의 「무단포기」로 告身二等을 삭탈 당하였으나 歸田園의 뜻은 더욱 굳어, 그해 2월에는 퇴계의 서쪽에 처음으로 터를 잡아 뒷날의 도산서당의 터를 卜築한다. 이로 보아 퇴계의 請額書文은 藏修立教하려는 心機의 단적인 표현이고 그의 請學後半生의 막을 여는 서곡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퇴계의 서원 교육 방법론은 다음과 세 가지 측면으로 살필 수 있을 것이다.

(一) 教育權의 獨立性維持 : 「學問의 自由」

그는 <上沈方伯>書²⁰⁾에서 宋朝 고사에 의거하여, 「서적을 내려 주시

19) 金相根, 韓國書院之制度, (嘉永文化基金研究論文, No.48), 臺灣, 國立政治大學 教育研究所, p.35

20) 「退全」(一) 「上沈方伯」, p264

고, 편액을 써서 내려 주시며, 또 田士와 노비를 하사하시어 그 재력을 넉넉하게 하시고, 감사와 군수로 하여금 다만 서원의 作養하는 것만을 보살필 뿐, 번거로운 조목으로 구속하게 하지 말도록 청하였다. 여기서 문제되는 바는 방점친 부분일 것이다. <又今 監司郡守但句檢其作養之方 贍給之具 而勿抱以苛令煩條…>를 오늘의 문교장학제도로 보면 私學교육의 자율성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의 자율성은 「지원은 있으나, 통제가 없는 원리」(Support, but not Control)를 말함이다.

이러한 문교정책은 歐美교육에서는 일찍부터 많은 성가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5백여년전 우리 나라에서 「교육자율성」이 강조와 「교육자치제」의 구상 및 「교육보호 속에서의 행정의 불간섭」의 원리와 실천을 퇴계가 주장하였으며, 또 실현시켰다는 점에 대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는 감동과 부끄러움을 함께 느껴야 되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지원하되 통제가 없는」 교육은 자칫하면, 명목만 있고 실상을 缺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조선조의 관학교육제도가 과거라고 하는 관료제도와 결부될 수 있음으로써 그 현실적 地盤이 굳어질 수 있었던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즉 조선조에 있어서 신분상의 지배층인 양반이 그 현실적인 지위를 보장받는 길은 관료가 되는 길이 正規의 문호였고, 이 길에 오르자면 아무래도 과거가 중시되는 것은 물론, 교육 또한 이 과거를 위한 준비에 역점을 두게 된다. 따라서 교육제도와 관료 제도는 합쳐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탈관료의 교육 체제로서의 서원에 대한 관심은 사림의 소관으로 여기기 십상이고 지방행정 관료의 관심은 소홀히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퇴계는 서원에 대하여 「지원」은 풀어놓고, 「통제」는 묶어 놓는 이중책을 구상하였다. 「소수서원등록」에 보이는 서원에 대한 「지원」은 가히 擧道的인 관심사였다. 陝川, 밀양, 機張, 신령, 안동, 영천, 養城, 창원, 상주, 예천, 영덕, 안강, 군위 등지에서 보면 書院供饋物은 枚擧할 수 없을 정도이고 이는 모두 지방 수령에 의한 公需用品이 대부분이었다. 「守令七事」의 으뜸가는 治績이 敎學之事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方伯

역시 이를 總攬하는 데 勸善하였고 퇴계는 이 점에 더욱 주목하였다.

文成公의 후예인 判書公 玠이 그때 마침 와서, 道를 按察하며, 廟堂에 배알하고 선비들을 禮로 대하며, 作養之方을 극진히 하며, 노비의 수를 늘리고 魚鹽을 제공하는 등으로 조치하여 길이 힘입도록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監司로 오는 분마다 또한 뜻을 여기에 숭하게 두고 장려하니 서원에 대하여 감히 소홀함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원 관할의 수령들은 항상 스스로 몸을 낮추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관리의 몸가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²¹⁾

대개 수령이 능히 선비에게 몸을 낮추는 일을 부끄러이 아니 여기고 뜻을 극진히 하여 尊賢諸士를 하면, 諸生들도 자중할 줄 알아서, 뜻을 가다듬고 講學한다면, 곧 피차가 서로 할 일을 다하게 되고 나아가 서원의 名實을 얻게 될 것이오니 足下는 이를 양찰하시압.

퇴계의 이와 같은 官의 「불간섭원칙」이 국가적으로 공인된 것은 明宗 5년이였다.²³⁾

(二) 師道の 擴立·人格敎化의 方法原理

퇴계는 서원에 스승<洞主·山長>이 있어서 교육하는 일은 매우 중대한 일이니 尤當하게 거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스승된 자와 스승의 길은 다음 일들을 유의하여야 된다고 논술하고 있다.²⁴⁾

○ 勸善수범할 것(敎必由於上而達於下然後其敎也)

21) 위의 글, p.262.

23) 明宗實錄, 庚戌二月 丙午條, 「且儒生讀書 貴寂寞之境, 若監司守令欲勸課 煩其敎令而檢束之, 則人不自由, 恐乖藏修游藝之道, 莫勿撓之而已。」

24) 위의 글, 「上沈方伯」, pp.263~4

- 서원은 一地方, 一道의 수령방백의 업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 문서(國乘)에 실리는 본받을 만한 제도가 되도록 영구히 전해 내려갈 것.
- 儒臣 가운데 덕망·經術·節行·風義가 가히 사람의 모범이 될만한 사람을 골라 군수를 삼고 서원의 책임을 다하게 할 것(이렇게 하여야만 一邑 一道의 학교가 아니라 한 나라의 학교가 될 것임)
- 先正의 자취가 깃들고, 향기가 뿌려진 곳, 예컨대 崔沖·禹倬·鄭夢周·吉再·金宗直·金宏弼 같은 이가 살던 곳에 서원이 없을 수 없으며, 혹 私建하여 藏修의 터로 삼으면 「聖朝右文之明 明時樂育之盛」이 될 것이고 東方 文教가 크게 밝혀져서 가히 「鄒魯」·「閩越」의 아름다움이 칭송될 것임.

서원은 그 配享하는 先正의 무언의 간접적인 교화와 教誨를 當하는 스승의 직접적인 정신적 인격과의 「만남」을 가능케 하여 준다. 「만남」(Begegnung)으로서의 스승은 마치 번갯불처럼 인격의 가장 깊은 곳에 부딪쳐서 방황하는 삶의 의미를 깨우치고, 또 삶 그 자체를 충만하게 하여 주는 은혜와 같다.

옛 교육은 도덕적 인격교육이었고 가치발견의 교육이었다. 제자는 스승을 만남으로써 「동일시할 수 있는 인물」(Identifying figure)과 은혜롭게도 구체적인 만남이 비롯되는 것이다.

퇴계는 학생들이 타락하게 되는 폐단은 스승이 그 직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단언한다(師長不職之過也). 「하루 동안(스승의) 자리에 있다면, 마땅히 하루의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一日居此則 當有一日之責).

(三) 선비대접으로서의 學生·士氣培養의 교육

퇴계의 <擬與豐基郡守論書院事>의 글은 院生들의 동맹휴학(捲堂)사건에 대한 의견서이다. 金仲文이 白雲洞書院설립에 有功하여 당시 수령(金慶彦)의 비호와 조정 대신들의 보살핌을 받게 되고 書院有司로 관여

하던 중, 원생을 구타하고 모욕한 일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불만을 품은 원생들이 「捲堂」을 하기에 이르렀다.

퇴계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한다.²⁶⁾

- 諸生이 만일 「無故」하게 서원에 모인다면 이는 諸生의 거취가 不明하고 서원의 體(정신)가 가볍게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선비는 <禮로待>할 것을 은근히 강조한다.
- 수령이 두 고을의 선달들인 黃仲擧, 朴重甫 같은 名望의 선비를 예방하여 그들로 하여금 諸生을 招致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써 선비에게 내리는 미덕이 있게 되고, 諸生들은 스스로 가벼이 여기는 부끄러움을 지니지 않게 될 것이다.
- 有司(金仲文)가 되었으면 마땅히 국가의 아름다운 뜻을 삼가 받들어야 할 것인데도, 어찌하여 尊賢養士 하지 않고 도리어 倨傲하여 유생을 보기를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며, 비천한 말을 내뱉는단 말인가. 諸生이 격노하여 서원을 비우고 간 것이 어찌 유생들의 허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有司로 하여금 마땅히 참회하고 자책하며, 몸을 굽혀 사과하도록 하게 하라.
- 有司가 이 허물을 고치지 않으면, 국가가 서원을 설립한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 몸을 굽혀 선비에게 자신을 낮추는 일은 사대부의 아름다운 일이다. 이제 城主는 선비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도리어 선비가 굽히어 서원에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은 城主가 아름다운 일을 보고도 취하지 아니하는 일이다. 유생들의 마음이 돌아오기 전에 성주의 瓜滿이 되면 竹溪의 바람과 달은 처량하고, 덩그러니 큰 집은 적막하여 넓은 방에는 거문고와 글을 읽는 소리가 끊어져 쓸쓸할 것이니, 비록 仲文과 같은 사람을 열 사람을 시켜서 서원의 사당을 지키게 하고 春秋香火를 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文成公의 靈은 아마 이곳을 돌보고 흠향하기를 즐기 않을까 두려우며, 周景遊의 열도 또한 반드시 지하에서 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상, 장황하게 약술한 퇴계의 글에서 우리는 선비대접하는 범절을

26) 「擬至豊基郡守論書院事」, pp.340~341 및 「擬與榮川守紹修書院事」, pp.338~340 참조.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그들 선비는 비록 「傲·狠·凌·忽·鄙·悖·險·
·陂」하다고 하더라도 안으로는 「主忠信」하고 밖으로는 「行遜悌」하도록
敎誨한다면, 자연히 「謙·恭·順·悌·樂義·好義」의 뜻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詩傳에 나오는 것처럼 「菁莪가 무럭무럭 자라고,
棫樸이 재목이 되는」것 같이 彬彬濟濟하게 자라나, 뒷날 時用에 임하고
「國家右文興化 設養士之意」에 부응될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하였다.²⁷⁾

「학교는 풍속교화의 근원이며, 모범을 세우는 곳이요, 선비는 예의의
주인(宗)이고 元氣가 깃드는(寓) 곳」²⁸⁾이기 때문에 선비는 예의로 대
접하여야 하고 士氣는 배양되어야 한다고 퇴계는 굳게 믿었다.

27) 「諭四學師生文」, P.340

28) 같은 곳, P.338